

지역 소식통



완주군,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실시

완주군은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관내 1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육 내용은 횡단보도 보행수칙, 안전한 승차법, 사각지대 확인 요령, 안전벨트 착용 및 체험 등이며, 매 교시별 30명을 대상으로 하루 평균 60여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았다.

횡단보도 보행수칙은 운동장에 설치한 간이 신호등을 통해 승차법 및 사각지대 교육은 특수차량을 타고 내릴 때 전문강사의 개별지도로 진행됐다.

특히 안전벨트 착용 교육은 특수제작 차량에서 이뤄졌는데, 교통사고 영상과 함께 급제동시와 동일한 충격을 체험할 수 있는 전동좌석이 앞뒤로 움직이며 안전벨트 착용의 중요성을 오감으로 배울 수 있는 시뮬레이션 교육이 진행됐다.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완주군이 완주교육지원청, 한국어린이안전재단과 협력해 지난해부터 관내 30여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원주=이종복 기자



완주군장애인복지관 어버이날 행사 개최

완주군장애인복지관(관장 육주일)에서는 지난 8일 어버이날을 맞아 관내 200여명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2017년 어버이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다양한 축하공연과 어버이날 노래 제창 등으로 어르신들에게 합박웃음을 선사했으며, 무지개재능유치원 원아들의 깜찍한 재롱잔치와 함께 어르신들에게 직접 케네이션을 달아드리는 뜻깊은 행사가 연출됐다.

또한 참여한 어르신들에게 정성껏 준비한 점심 대접과 선물을 증정하여 어버이날에 대한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새 정부, 국민의 뜻 섬겨야”

박성일 완주군수, 국가예산 확보 등 새로운 접근·전략 필요

박성일 완주군수는 10일 새 정부 출범을 군민과 함께 축하하며, 통합과 소통을 통해 국민의 뜻을 섬기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박성일 군수는 10일 간부회의에서 "9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곧바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완주군민의 대신해 축하한다는 말씀을 전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투표를 통해 보여준 국민의 뜻을 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어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군수는 "바쁜 영농철과 좋지 않은 날씨에도 79.8%의 투표율을 기록할 정도로 소중한 주권행사를 해준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주민의 한 표 한 표는 새 정부가 상식 상식으로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밑거름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군수는 "어느 정치적 사

보다 통합과 소통은 중요하고,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미덕"이라며 "변화, 소통, 열정을 기반으로 군정에 임해온 만큼, 앞으로도 그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 군수는 또한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국가예산 확보, 공모사업 대응 등에도 새로운 접근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에 대한 민반의 준비에 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조상땅 찾기 서비스 '호응'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행, 조상땅 찾기와 동시 신청 가능

김제시가 추진중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소유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 조회하는 제도로 2001년 도입됐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청자 신분증과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하면 되고 이용수수료는 없다.

다만 재산권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조상땅에 대한 조회신청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김제시에 따르면 2002년부터 시행된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해를 거듭할수록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제시는 지난해 897명의 신청을 받아 1,751필지, 2,081천㎡의 토지가 확인되었다.

올 4월 현재 신청인원 398명에 891필지, 1,092천㎡ 상당의 토지정보를 제공하여 상속자 등에게 상속자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해 상속권자가 읍면동에서 사망 신고서 조상땅 찾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조상땅 찾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권자가 전국 시·군·구 읍면에서 신청할 수 있고 (동주민센터에 신청할 시는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 사망신고와 동시에 사망자의 토지소유현황을 포함해 금융거래, 자동차소유,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가입여부를 통합해 신청할 수 있어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신미란 민원소통과장은 "조상들이 소유하다 재산정리를 하지 못하고 사망해 후손들이 모르고 있는 사례가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로 조상땅 찾기 제도가 활성화되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환경관리주식회사, 장학재단에 장학금 기탁

김제시장학재단(이사장 이진식)은 10일 환경관리주식회사(대표 임추섭)가 "희망찬 김제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사업에 써 달라"며 장학기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환경관리주식회사는 2011년부터 김제시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기업으로 2011년에도 장학금 1천만원을 기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꾸준한 나눔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더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정화활동에도 솔선수범하고 있다.

기탁식에 참석한 임추섭 대표는 "김제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인재를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탁하게 되었으며,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이를 계기로 자신들이 꿈꾸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지역사회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장학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진식 김제시장학재단 이사장은 "기탁하신 소중한 장학금은 지역 인

재들이 훌륭한 재목으로 성장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현재까지 장학금을 후원하여 주신 든든한 후원자 덕분에 인재양성의 소기 성과를 거두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김제시장학재단은 2007년 8월 설립되어 지금까지 294억원(전국 지자체 최고액)의 장학기금을 조성, 지역특성에 맞는 내교장 학교보내기 격려금 사업, 과감한 장학금 지원사업, 수도권 못지않은 교육기회제공을 위한 지광선학당 운영, 찾아가는 생활과학교실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 /김제=곽노태기자



정보화농업인연구회, 후원금 전달

완주군, 운주지역아동센터에 기부

완주군 정보화농업인연구회(회장 유지선)가 완주군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된 제2회 완주군정보화농업인연구회 경진대회에서 판매한 수익금과 가공제품 농산물을 지역아동센터에 후원했다.

정보화농업인연구회는 이날 8일 운주지역아동센터(센터장 최금성)를 찾아 100만원(수익금 50만원, 가공농산물 50만원)을 전달했다.

완주군정보화농업인연구회는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연구회로 불로그, SNS를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 정보와 교육을 꾸준히 추진해 현재 3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유지선 회장은 "비록 약소한 후원이지만 모두 어렵고 힘든 시기

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회원들의 뜻을 모아 전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운주지역아동센터는 2006년 설립인가 되어 결손·조손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까지 19명의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다.

권택 농촌지원과장은 "지역사회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 문화에 동참해 주신 완주군정보화농업인연구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4월말 인구 9만5838명 기록

완주군 인구가 2017년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완주군에 따르면 4월말 현재 인구는 9만5838명을 기록했다.

이는 9만5480명을 기록한 지난해말에 비해 358명 늘어난 것이다.

전북 전체적으로 인구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완주군 인구는 월평균 90명 정도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읍·면별로는 봉동읍이 2만7000명을 넘어선면서 인구 증가를 이끌었는데, 읍·면별로는 봉동읍이 2만7000명을 넘어선면서 인구 증가를 이끌었는데, 읍·면별로는 봉동읍이 2만7000명을 넘어선면서 인구 증가를 이끌었는데,

올들어 제내리에 위치한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가 본격화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 효과를 본 이서면, 귀농귀촌 등의 영향에 힘입은 고산면 등도 인구증가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4월말 현재 완주군의 연령별 인구비중은 아동(0~18세) 18.2%(1만 7468명), 청년(19~39세) 24.3%(2만 3251명), 중장년(40~64세) 37.6%(3만 6074명), 노인(65세 이상) 19.9%(1만 9045명) 등으로 조사됐다.

올들어 제내리에 위치한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가 본격화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 효과를 본 이서면, 귀농귀촌 등의 영향에 힘입은 고산면 등도 인구증가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4월말 현재 완주군의 연령별 인구비중은 아동(0~18세) 18.2%(1만 7468명), 청년(19~39세) 24.3%(2만 3251명), 중장년(40~64세) 37.6%(3만 6074명), 노인(65세 이상) 19.9%(1만 9045명) 등으로 조사됐다.

/원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금산면 새마을 부녀회, 경로잔치 벌여

김제시 금산면 새마을 부녀회(회장 장미숙)는 11일 금산면사무소 앞 주차장에서 관내의 독거 어르신 100여분을 모시고 경로잔치를 벌인다.

이날 잔치는 금산면장과 금산농협조합장 등 금산면 기관·단체장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마을 부녀회원 55명 전원이 손수 음식을 장만하고

직접 어르신들을 수행하며 진행될 예정이다.

새마을부녀회는 기존에도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마을별 식사대접 등 후원행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관내의 여러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이바지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순창종합사무기기

팀장 이동선 <렌탈전문>

TEL: 063-653-5002 H.P: 010-6633-4070

